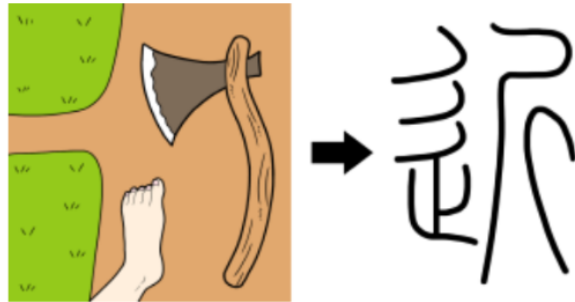


6  
-  
11

회의문자 ㉠



近

가까울  
근

近자는 '가깝다'나 '비슷하다', '근처'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近자는 辶(쉬엄쉬엄 갈 착)자와 斤(도끼 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斤자는 '도끼'를 그린 것이다. 여기에 辶자가 결합한 近자는 길을 나누듯이 거리를 줄인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다만 지금의 近자는 거리의 짧음 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의 친분이나 시간의 가까움을 뜻하기도 한다.

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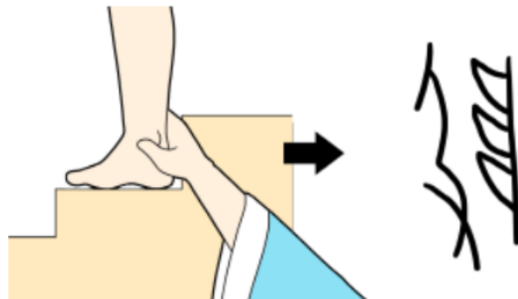
소전

近

해서

6  
-  
12

회의문자 ㉠



級

차레/  
등급  
급

級자는 '등급'이나 '층계', '차레'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級자는 系(가는 실 사)자와 及(미칠 급)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及자는 사람의 다리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런데 級자의 갑골문을 보면 系자가 아닌 阜(언덕 부)자에 及자가 及 결합한 형태였다. 마치 사람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습을 표현한 것과도 같다. 이후 소전에서는 阜자가 系자로 바뀌게 되었지만, 갑골문에 나온 대로라면 級자는 사람이 계단을 오르는 모습에서 '등급'이나 '차레', '층계'라는 뜻을 갖게 됐음을 알 수 있다.

級

갑골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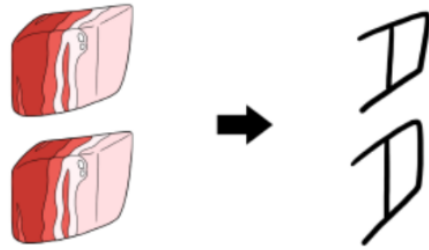
級

소전

級

해서

회의문자 ①



多

많을 다

多자는 '많다'나 '낫다', '겹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多자는 夕(저녁 석)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사실은 肉(고기 육)자를 겹쳐 그린 것이다. 갑골문에서는 肉자가 서로 겹쳐진 𠂔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지만, 금문에서는 夕(𠂔)자와 肉(𠂔)자가 매우 비슷하여 혼동이 있었다. 多자는 본래 고기가 쌓여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많다'라는 뜻을 갖게 된 글자이다.

𠂔

갑골문

𠂔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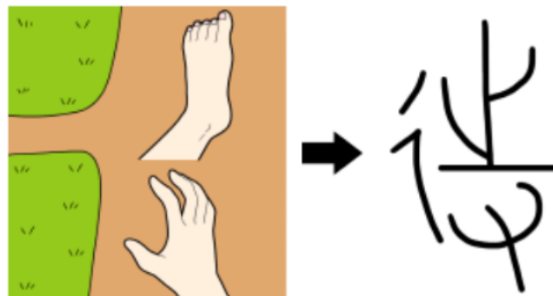
𠂔

소전

多

해서

회의문자 ①



待

기다릴  
대

待자는 '기다리다'나 '대우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待자는 彳(조금 걸을 척)자와 寺(절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중국이 불교를 받아들이기 이전까지는 寺자가 '관청'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待자는 이렇게 '관청'을 뜻하던 寺자에 彳자가 결합한 것으로 '관청을 가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었다. 그런데 지금의 待자는 왜 '기다리다'라는 뜻을 갖게 된 것일까? 관청은 행정을 담당하던 곳이었으나 업무를 처리하는 속도가 매우 더디었다. 그래서 待자는 '관청을 가다'를 뜻하다가 후에 '기다리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待

금문

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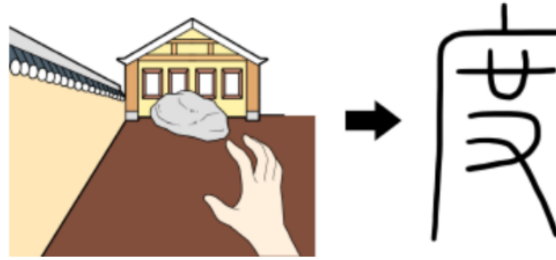
소전

待

해서

6  
-  
15

회의문자 ①



度

법도 도/  
헤아릴  
탁

度자는 '법도'나 '헤아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度자는 宀(집 엄)자와 廿(스물 입)자, 又(또 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여기서 廿자는 돌맹이를 표현한 모양자이다. 이렇게 돌맹이를 그린 廿자에 又자가 결합한 度자는 집 주위로 돌맹이를 던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度자는 본래 '헤아리다'라는 뜻을 위해 만든 글자였다. 그래서 큰 집을 뜻하는 宀자에 돌맹이와 손을 함께 그려 돌맹이를 멀리 던져 길이를 잴다는 뜻을 표현했다. 度자에 아직도 '던지다'나 '재다'라는 뜻이 남아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고대에도 길이나 무게는 국가가 정한 기준을 따라야 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이를 헤아리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度자는 후에 '법도'나 '법'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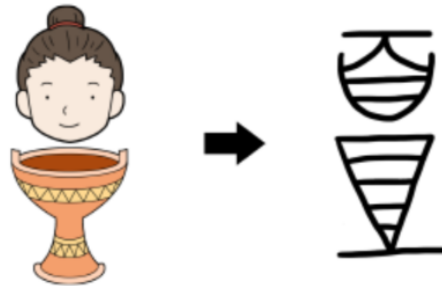
소전

度

해서

6  
-  
16

회의문자 ①



頭

머리 두

頭자는 '머리'나 '꼭대기', '처음'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頭자는 豆(콩 두)자와 頁(머리 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豆자는 '콩'이라는 뜻이 있지만, 본래는 제기 그릇을 그린 것이다. 전국시대 때의 頭자를 보면 豆자 위로 頁자가 頁 그려져 있었다. 마치 사람의 머리를 제기 그릇에 올린 것 같지만 이것은 사람의 머리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니 豆자는 발음과 함께 사람의 신체 윗부분에 있는 머리를 표현하기 위해 쓰인 것이라 할 수 있다.

頭

금문

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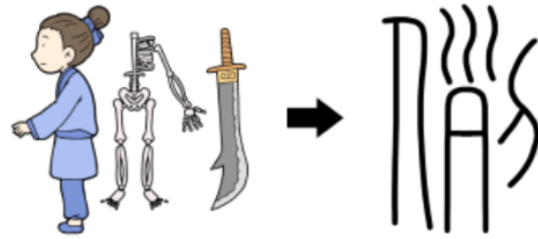
소전

頭

해서

6  
-  
17

회의문자 ①



例

법식 레

례자는 '법식'이나 '규칙'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例자는 人(사람 인)자와 列(벌릴 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列자는 뼈를 분리한 후에는 부위별로 늘어놓는다는 의미에서 '늘어서다'나 '순서를 매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순서를 매긴다는 것을 뜻하는 列자에 人자를 결합한 例자는 '사람이 지켜야할 순서'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바로 '법식'이나 '규칙'이다.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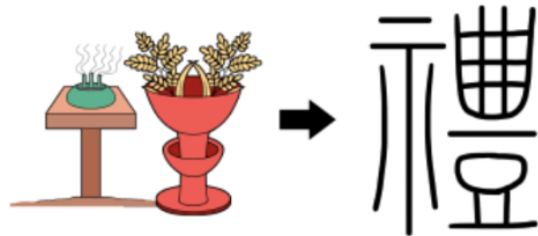
소전

例

해서

6  
-  
18

회의문자 ①



禮

예도  
(예절)  
예

禮자는 '예절'이나 '예물', '의식'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禮자는 示(보일 시)자와 豊(예도 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豊자는 그릇에 곡식이 가득 담겨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예도'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예도'라는 뜻은 豊자가 먼저 쓰였었다. 고대에는 추수가 끝나면 신에게 감사하는 제사를 지냈다. 이때 수확한 곡식을 그릇에 가득 담아 올렸는데, 豊자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그린 것이었다. 그러나 후에 豊자가 '풍성하다'나 '풍부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면서 소전에서는 여기에 示자를 더한 禮자가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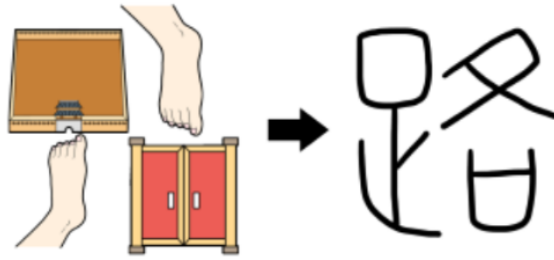
소전

禮

해서

6  
-  
19

회의문자 ㉠



路

길 로

路자는 '길'이나 '도로'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路자는 足(발 족)자와 各(각각 각)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各자는 발이 입구에 도달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各자의 본래 의미는 '오다'나 '도착하다'였다. 반면 足자는 성(城)을 향해 진격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 두 글자를 결합하면 '오고 가다'라는 뜻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路자는 통행이 빈번한 길이나 도로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路

금문

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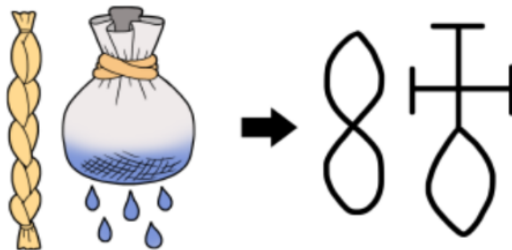
소전

路

해서

6  
-  
20

회의문자 ㉠



綠

푸를 록

綠자는 '푸르다'나 '초록빛'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綠자는 系(가는 실 사)자와 𣎵(새길 록)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고대에는 자연에서 채취한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염색했다. 때로는 나무나 풀에서 색을 얻었는데, 모두 천을 염색하는 데 사용됐다. 𣎵자는 자연에서 채취한 염료를 가공한 후 보자기에 넣어 쥐어짜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새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綠자는 이렇게 염료를 쥐어짜는 모습을 그린 𣎵자에 系자를 결합한 것으로 '초록빛'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綠

갑골문

綠

소전

綠

해서